

# 영암군수, 국비 확보 위해 구슬땀

### 서삼석 국회의원과 간담회 갖고 지원요청

### 열악한 군 재정 상황 감안 국비 확보 필수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군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경쟁에 앞서기 위해 지난 4일 서삼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현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군이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으로는 ▲삼호읍 용당지구 배수개선사업(95억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4억원) ▲영암 용산 소하천 정비사업(9억원) ▲영암 훈령용 소형 항공기 비행장 개발(23억원) ▲수소연료전지가반 시제선 개발(7억원)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80억원)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10억원) 등이 다.

특히, 전동평 군수의 특심 행정으로 입지적정성 평가에서 적당 판정을 받아낸 ▲월출산 명사 탐방로 개설, 월

출산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시설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 등은 현장을 직접 안내하며 사업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영암 랜드마크 월출산에 집적화된 문화관광 시설을 연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목포 관광거점도시와 여수 해양관광도시를 잇는 연결축 개발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강조하며 현장에 함께한 서삼석 의원의 국비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삼호읍 용당지구 배수개선사업,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현안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최대한 국비가 많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국내외적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국비 확보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부처 및 전라남도도와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군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의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군 재정력을 키우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열악한 군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안사업 해결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 공무원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다문화가정 차량지원 공모사업 선정

###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인승 승합차 1대 지원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기영)가 사회복지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한 다문화가정 차량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8일 센터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차량 후원공모를 실시했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75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총 14곳(승용차 8대·승합차 6대)이 최종 선정됐으며 센터는 12

인승 승합차 1대를 지원받았다.

센터는 이번에 지원받은 차량을 활용해 지역 내 학교, 마을회관, 각종 시설들을 순회하며 공동체 사업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 가족심리상담을 예약제(☎061-320-5431)로 운영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 목포시,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발굴조사

### 구 세관창고 미식클럽·소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목포시가 구 목포세관 본관 터(국가등록문화재 제786호) 발굴조사를 이달 초부터 시작한다.

목포세관은 우리나라 최초 자주제항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건물로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과 동시에 해관(海關)이라는 명칭으로 관세업무

시작하였으며 1907년 세관(稅關)으로 개칭된 뒤 1908년 목포진에서 현재 위치(항동 6-33)로 옮겨왔다.

당시의 세관본관은 1950년대 멸실되고 1955년 신청사가 신축되어 1967년 목포세관이 삼학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관세업무를 보았으며, 이후 완전히 멸실되어 터만 남아 지금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표본조사를 실시해 구 목포세관 본관의 유구 일부를 확인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본관 터의 규모와 특징 등 뚜렷한 형태를 발굴 완료할 방침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 신안군 증도면 이장협의회, 발열체크 봉사

### 유관기관 협조받아 코로나19 확산예방에 최선



신안군 증도면 이장협의회(회장 이개돌)는 증도면 유관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지난 4일부터 증도면 입구 관광안내소에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열 체크 검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인 신안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증도면 관광안내소 입구에 검역소를 설치하여 관광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0일까지 발열 체크를 전개할 계획이며 봉사인원은 1일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장협의회는 증도면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발열 체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위생관리에도 더욱 힘쓰는 한편 관광객 및 방문객들의 관광안내에도 친절히 응대하며 특히 지역문제 해결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혁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증도면장(박재욱)은 "어려운 시기지만 적극적인 자원봉사 덕분에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비접촉식 체온계, 방역복 등 발열체크에 필요한 물품을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영광군, 자살예방·코로나 우울 극복 희망 메시지 전달 캠페인

### 읍·면사무소 자살예방 QR코드 활용 '코로나 우울 측정 설문지' 배부



지난 7일 영광군은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영광군 보건소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집중호우, 잦은 태풍 등으로 인하여 우울, 무

력감 등이 심화되면서 신체 건강과 더불어 마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9월 한 달 동안 정신 건강의 심리방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음 건강 검사, ▲생명 사랑 현수막 게시, ▲비대면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각 읍면사무소에 자살예방 QR코드를 활용한 '코로나 우울 측정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에 참여한 200명에게 모바일 기프트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생명사랑 인식개선과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어린이집 방역 '생활소독단' 모집

### 무안군, 관내 46개소 대상...여성 소독사 47명 모집

무안군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여성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0년 푸른전남 무지개 생활소독단'을 모집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여성 생활소독사 47명을 선발하여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관내 어린이집 46개소에 배치해 주 5회 소독함으로써 어린이들

감염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함이다.

생활소독사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가 있는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 여성으로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은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